

교육활동 보호대책 현장 체감도 살피

서거석 교육감, 전주서곡중·은화학교 등 민원상담실 구축 학교 방문 운영사항 점검

서거석 교육감은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와 전주은화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 및 민원 응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교원들은 민원상담실 구축으로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더불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로 학생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의견을 전했다.

민원상담실에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이 구비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및 학급수·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긴급예비비를 편성, 초등학교 9곳, 중학

교 4곳, 고등학교 3곳, 그리고 특수학교 1곳에 민원상담실을 구축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생 분리 지도장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조성해 공감과 치유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를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우석대 산학협력단, 기술나눔 동참

대학 보유 특허기술 10개, 중소·중견기업에 이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ESG 경영 및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기술나눔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8~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

화 대전'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이 보유한 특허 기술 10개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요 특허는 △산

테이트 화합물을 이용한 β케토 살론 화합물의 제조방법(이기승 교수) △과수원 도난방지 안전알림시스템(임광희 교수) △보행보조장치(이우금 교수) △유산균 막걸리 및 그의 제조방법(유창성 교수) △저탄성 보일러용 불완전연소 감지장치(공하성 교수) 등 10개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되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학협력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허브 구축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출범 20년을 맞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8~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이 보유한 특허 기술 10개를 이전하기로 했다.

전북대, 전국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 '최우수'

전기차 충전 충전·영유아 추락방지 시스템 등 '호평'

전국 73개 대학 172개팀 중 최우수 1팀·특별상 1팀

전북대학교는 최근 열린 '2023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73개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수행 대학에서 선발된 172개 우수 캡스톤디자인팀이 참여했다. 이후 13개의 컨소시엄별 예선과 통합본선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최우수상 12개, 우수상 13개, 특별상 47개 등 총 7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제3의 눈팀(권순안·김동현·오은석·윤민서, 지도교수 류시형)이 전기차 충전 충전 시스템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과열 및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 배터리의 온도가 임계온도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침수가 판단될 때 자동차 충전 전력을 즉시 차단함으로써 전기차로 인한 화재 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2023 전국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다.

이와 함께 특별상을 받은 캐처스팀(박현수·이현준·임해나, 지도교수 이덕진)은 영유아 추락 방지를 위한 가변식 안전망(캐치 마이 키즈!)을 제작해 호평을 받았다. 캐처스팀은 매년 발생하는 아동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아동이 추락할 경우 자동으로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펼쳐지는 제품을 개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3의 눈' 팀 권순안 학생(기계공학과)은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고생해 준 팀원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아낌없이 지도해 준 류시형 교수님, 그리고 공학교육혁신센터, LINC3.0 사업단, 산·학·관 커플링 사업단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일재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가진 인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전국 13개 컨소시엄, 73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주관기관으로서 총 5개 대학(광주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제주대)과 함께 우수한 공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위기학생 지원 내실화

전주교육지원청, 위(Wee) 프로젝트 사례 공모 '최우수' 학생·상담업무담당자 부문

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제12회 전국 위(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전은 심리·정서적 위기 등을 극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위(Wee)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학생 부문과 상담업무담당자 부문 모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생 부문 '내가 마주한 삶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와, 상담업무담당자 부문(나은희 사회복지사)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싶어요'는 경제·심리·정서 등 위기상황에서 가정-학교-위(Wee)센터-지역사회(상담센터, 복지기관)가 다각도의 전략적 소통으로 상담과 복지를 연계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데 있어 상담업무담당자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적응을 돕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청년키움식당 전주점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삼진 단장)은 '2023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기관 평가'에서 청년 키움 식당 전주점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청년키움식당 전주점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 운영 기회와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주시와 함께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한 청년키움식당 공모에 선정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맛집창업교육관을 조성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외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과 신메뉴 개발, 업종 전환 등 이론 및 실습 공간을 제공했다.

운영을 지원하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외식 창업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창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운영 사례발표대회에서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 중심으로 지역 내 청년들이 모인 '늘봄'팀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늘봄'팀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청년키움식당을 운영, 전주의 10미 중 마나리와 풍나물 등을 활용한 미우담뱃, 늘봄국밥 등을 선보였다.

한편, 청년키움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자신의 자본금 없이 실제 창업 운영 기회를 제공, 준비된 외식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美 CES '디지털 헬스 혁신상'

전북대 송철규 교수팀 '혈전 탐지 생체 영상 장치'



전북대학교 송철규 교수(사진) 연구팀이 실시간 혈전 탐지 장치인 생체 영상 장치로 2024 전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는 전북 지역 대학, 기업, 기관 통틀어 최하다.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IT·전자제품 박람회 CES의 전시에 앞서 한 해 동안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우수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따르면 송철규 교수 연구팀의 혈전 탐지 영상 장치는 하버드의대에서의 임상연구와 국가 R&D(교육부 BRL,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를 통해 유효성과 정확성을 검증해 온 기술을 토대로 암실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형광 영상 장치의 단점을 자외선

차단 필터를 이용해 암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이러한 장점은 실제 수술 및 진료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사용과 더불어, 새로운 병변의 탐지와 약물 전달 이 미징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철규 교수는 “우리 대학이 가진 기술적 역량을 CES 2024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쾌거”라면서 “물심양면 성원에 준 대학 구성원과 전북도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연구 개발에 함께 참여해 준 고분자노공학학과 이동원 교수, 전자공학과와 하버드의대의 연구진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해 준 LINC 3.0 사업단 관계자 모두 감사하다”며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전북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팀이 개발한 혈전 탐지 생체 영상 장치는 내년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 Eureka Park에서 전북대학교 단체인에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2024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추진계획 안내

도교육청,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계 고교 담당자 대상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설명

전북도교육청은 29~30일 두차례에 걸쳐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위한 단위학교 준비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9일에는 전주·익산·정읍 지역 47개 일반계 고등학교, 30일에는 군산을 비롯한 11개 시·군의 49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과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특강과 △2024학년도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계획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계획 △자율적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운영 계획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및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 지원 등이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2024년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추가 유아 지원금 지급을”

전북교사노조, “공립유치원이 소외된 지원 추가에 유감”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 감사도 요구

전북교사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2년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구별 없이 모든 유아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재정 감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기존 사립유치원 13만 5,000원·어린이집 10만원에 추가로 3만 원~3만 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아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국가교육과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없는 영어나 한글을 조기교육 시킬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더 잘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사립대 위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국립대 배려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도내 공립 유치원은 학급 수가 날이 줄어들며 유아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들은 교육행정협의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에듀레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감사도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스쿨버스에 있기에 원아 집 앞에서 편히 차 태워 보낼 수 있고, 방학이 짧으며 하교시간이 늦어 오랜 시간 딸길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한글과 영어 선행학습이 가능해 그간 학부모들이 매달 20~30만 원을 지출하며 보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